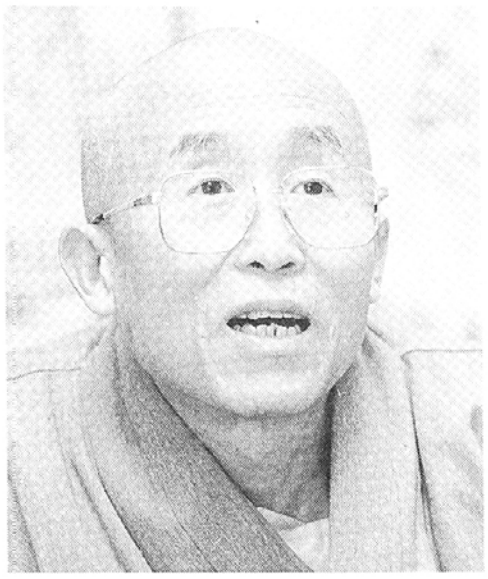
한글반포 550주년—한문불경 극복방법 없나 역경원장 월운스님에게 듣는다

"종단 과감히 관습 탈피 하길"



강원교육부터 변혁…한글·한문 이원화

한문법요의식 불교대중화 정체요인

—불경 한글화 의식 한글화는 불교대중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습니다. 한글세대인 새싹포교를 위해서도 필수적인데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직분 연령 성별의 차를 고려한 불교교육과 이에 맞는 한글교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교발전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 종도가 합의된 한글통일법요집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종단적 공감대가 덜 성숙된 것 같습니다. 종단의 지도자들이 협력해 서둘러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고유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중 불교를 외래어로 가르치는 나라가 있는지요.

▲소승불교권인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은 팔리어로 의식을 하고 있고 티벳, 일본과 영국등 서양에서는 상당부분 자기네 나라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문은 원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출가자들이 한글세대인데도 강원교육은 여전히 한문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에 변혁이 있어야 할 듯 싶은데 그대로 답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첫째 관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아직껏 강원등 승려전문기관에서 운용할만한 교재가 없다는 것도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 장차 장경의 전체 흐름을 연구할 교단의 주역이란 점을 고려해 역시 한문경전을 해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한문실력이 전반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한문교재를 쓰는 것은 결국 무엇이 무엇인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는 허점이 없지않기에 강원교육을 이원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즉 초보자들에게는 번역된 경전으로 이론을 습득하는 기본반을 이수케 하고 경전을 전공할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반에서 한문경전을 습득케 하는 방법입니다.

—법회등에서 한문으로 하는 의식은 마치 주문처럼 들려 불교대중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의식에는 주문같은 요소가 없어서도 안됩니다. 의식의 구조상 탄백(歎白) 부분 즉 의식을 올리는 취지고백, 의식부문마다의 개요, 마지막으로 의식을 봉행한 뒤의 축원 등은 이른바 사항설명이므로 우리말로 하고, 가지(加持)부분 즉 부처님께 직접 고하거나 부처님의 호념을 청하는 대목은 그대로 두어야 존엄성이 산다고 봅니다.

—이같은 문제는 1600년 한국불교역사의 정체성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경사업은 현재 어느정도 진척되었는지요.

▲지난 64년 동국역경원이 설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고려대장경 총 161,451면중 59.9%가 번역됐고 금년말까지는 70.8%가 끝납니다. 내년말까지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거의 완료될 것입니다. 현재 국고와 동국대의 보조, 자체 판매수익이 주요 재원입니다. 사실 번역고료가 너무 저조해 수준높은 분들에게 원고를 청탁하기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해야지 더 지나가면 더 어렵다'는 주위의 권유로 역경연찬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나름대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역경후원회를 만들어 만인동참으로 자금 압박을 벗어나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글화에만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널리 보급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전을 가깝게 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경전 읽는 맛'을 들여야 하는데 일단 한번 맛을 들이면 법문듣는 것보다 훨씬들 좋아하는걸 여러 번 봤습니다. 사찰마다 교양대를 만들어 경전 독송을 권하고 체계적으로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분위기조성이 필요합니다. 또 경전이 방대한 만큼 일일이 집에다 비치하기 곤란하니 사찰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 비치해 활용케하는 것도 좋고 종단차원에서 독송대회를 정기적으로 여는것도 좋은 방편이 되리라 봅니다.

이경숙 기자

"문화재사랑 국민의식 전환 필요"

'97 문화유산의 해' 이렇게 준비하자 각계의견

내년 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한 문화체육부는 지난 9월 19일 이를 이끌어갈 조직위와 집행위를 구성 발표, 본격적인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우리 문화재중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계도 '문화유산의 해'를 계기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불교문화재가 곧 민족문화재라는 인식을 확립시키는 등 불교문화재에 대한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문화유산의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 한병삼('문화유산의 해' 집행위원장)=국민들이 문화재의 참의미를 널리 인식하는 해가 돼야 한다. 이벤트사업보다는 문화재에 애정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 보호와 보존을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재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환경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해인사가 중요한만큼 그 주변환경도 보존돼야 한다는 폭넓은 인식의 전환이 되도록 사업을 펼쳐야 한다. 문화재와 그 역사사랑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대 과제다.

■ 범하스님(성보문화재연구원장)='문화유산의 해'를 불교계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자를 비롯해 온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을 주축으로 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성보문화재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올해 초부터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보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디딤돌을 다지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에도 비지정으로 남아있는 성보문화재 지정범위 확대 및 이를 보호할 제도장치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홍윤식(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불교역사와 문화를 소상히 알릴 더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우리는 문화재를 물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뿐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해 왔다. 불교는 곧 우리 역사다. 따라서 성보는 우리민족이 걸어온 발자취인 셈이다. 성보를 통해 그 정신적·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은 문화재 외형을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성보의 정신적 가치를 널리 알려 한국 문화재 전체를 불교가 지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

■ 문명대(동대 불교미술사연구소장)=전시회 등 각종 문화사업을 통해 불교의 문화·학문적 토대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동국대박물관을 비롯해 각 사찰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성보전시회와 학술회의 개최는 불교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성보위원회를 조직해 성보에 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케 하고 캠페인·교육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사업과 언론의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박명규(문화재관리국 기획관)=일제지정문화재 재평가 등 문화재 전반에 걸친 각종 사안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지역마다 고유의 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난 4월 화순 운주사를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가꿔보자는 취지에서 '운주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출범,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불교문화재 가꾸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은 눈여겨볼만 하다.

성보실태 파악미흡…관리·보존 제도화 절실

캠페인·행사통해 불교문화 우수성 홍보

한명우 기자

시론

'애사심' 흔들려도 좋은가

우리 경제는 요즈음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16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 물가는 올해 목표치인 4.5%을 넘어서 5%에 육박하며 올해 GDP성장률도 6.9%내지 7%로 낮추어 전망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더욱 놀라운 것은 어두운 경제적 현실이 아니다. 도리어 그보다도 그에 대처하려는 재계와 정부의 태도이다. 재계는 불황대책의 일환으로 임금총액동결, 인원감축 등의 극약처방을 내놓고 있다.

후유증 많은 감원처방

물론 기업의 불황대책으로 임금동결이니 인원감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그 효과도 빠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역기능이 너무도 크다.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을 사장시켜 미구에 '스카우트' 경쟁으로 노동시장을 혼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성장 후분배'의 구호가 '선성장 후정리해고'로 바뀜에서 오는 배신감은 기업에 남아 있는 근로자의 애사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 병 태
〈한양대 교수·상법학〉

물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고비용·저효율구조'에 있다. 그리고 고비용의 내용으로 고물가·고금리·고지가 및 고규제와 나란히 고임금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불경기가 어제 오늘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고임금구조의 개선이 불황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맨먼저 '임금총액동결과 인원감축'을 내세우는데 대해서는 석연치 않게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가 어려우면 무엇보다도 그 구성원의 일치단결과 그 단결을 통한 총력의 집중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사회와 구성원의 희생을 막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다. 기업의 경영위기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외국의 경우 기업에서 노사협의회나 공동결정체를 비롯한 노사협조제도가 등장한 것도 그 나라 경제와 경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기업이 어려울 경우 노사가 서로 맞대고 현실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할 일을 구상하여 다같이 그 목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를 서로 억울함이 없이 나누어 가지는 수단이 노사협의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노사협조보다는 근로자의 '임금동결과 해고'를 내세우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오늘날과 같은 경제불황은 이미 몇차례 있었고, 또 예상된 바 있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한국경제와 한국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개방가속화로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선진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따돌리고 기술격차를 크게 벌려 놓았으며, 다른 한편 후진국들이 한국의 수출상품과 비슷한 종류와 품질의 각종 수출상품을 한국제품보다 싸게 수출함으로써 한국상품시장을 계속 잠식하고 있다. 더욱이 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재벌구조에 있다.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에서 정부의 모든 특혜를 받아 얻은 기업이익을 재무구조개선이나 기술개발을 통한 불황대비나 경쟁력 강화에는 제대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또다시 지난날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먼저 근본적인 대책으로 재벌구조의 탈피를 위해 주력업종이외의 업종정리, 부실부분의 과감한 정리와 절대비를 비롯한 비용절감, 비업무용재산처분, 공동부품의 개발, 기업간 합병 등 선진국의 불황극복을 위한 대책이 우리 경제에서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 이를 실현하는데 노사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사가 함께 위기극복

근로자에게 경영내용을 솔직하게 개진하여 그들의 참된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기업의 장래와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희망을 위해 노사 다같이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비록 현실적으로 임금을 인상할 수 없을지라도, 목표로 하는 성과를 이룩한 경우,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예정하거나 회사주식의 배당을 약정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대기업의 임금인상의 억제도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호도 경제위기를 빌미로 정부가 구상하는 노사개혁을 반대할 것은 아니다. 노사관계의 개혁은 대통령이 언급한 바, 민주화와 세계화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다.

생활속의 불교 92

내 손이 최상·최고의 약손이다

누구나 무병장수를 바란다. 그러나 평생동안 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없다. 적어도 한 생에 몇차례 쯤은 질병에 시달린다. 때로는 생사의 고비를 겪기도 한다

지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일생의 상당부분을 병석에서 보내는 사람도 있다. 개중엔 병고를 이기지 못해 요절하거나 '시한부'선고를 받기도 한다. 정신의 병, 육신의 병을 통털어 말한다면 현대인 치고 아마도 병자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을지 모른다. 질병은 어쩌면 우리들 생의 한 부분 또는 삶의 당연한 내용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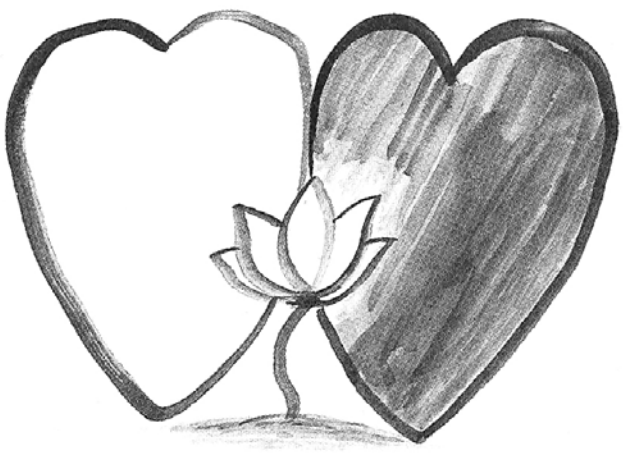
현대의학은 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여전히 열세에 놓여있다. 어떤 종류의 병은 의학의 발달에 힘 입어 완전 퇴치된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종류의 묵은 병에 대해서도 현대의학은 완벽한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다. 육신을 자동차라고 한다면 병원은 여전히 못 믿을 정비업소와 같다. 그런가하면 속속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질병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일지라도 한동안 속수무책이 되고만다.

질병은 우리들의 생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단지 예고없이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일 뿐인가, 아니면 당사자들이 모를뿐 이미 예고되고 준비된 것인가? 혹은 그것은 재수보기로 우연히 맞닥드린 것인가, 운명인가? 또는 조물주의 장난끼인가 시험인가?

흔히들 질병은 섭생·생활태도·환경 그리고 유전적 형질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불청객도 아니고 재수보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라는 얘기이다.

더 엄밀히 따지면 자신들이 자유의지로, 또는 무심코 뿌려놓은 원인의 씨앗들이 자라서 어느날 질병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곧 인과법인 셈이다.

질병이 원인과 결과의 산물이라면 모든 병의 원인은 항상 자기에게 있다.



내 탓이요, 씨앗 - 열매의 관계라면 병고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내 안에 있다. 의사의 손이 아닌 내 손이 내 병엔 최상·최고의 약손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기계가 고장 났을때 그 기계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이치와 같다. 내가 만들어 놓고서 나는 속수무책이니 남이 와서 고쳐주기를 바란다면 그게 말이나 되겠는가. 어리석음일 뿐이다.

내가 만든 것은 내것이다. 내것이므로 나와 다르지 않다. 누가 가져다 준 것도, 밖에서 찾아든 것도 아니라면 나의 일부분이요 그대로 나이다. 고로 싫으면 내 손으로 다시 만들고 고쳐 놓으면 된다. 쫓아 내려하기 이전에 바꾸면 된다.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한다. 어디서 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서 씨앗이 된 그 마음부터 바꿔야 한다. 질병은 그렇게 마음바꾸기를 요구하는 기회의 신호이다.

그것은 응징이나 형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바라는 참 나의 목소리요 몸짓이다. 고로 개심(改心)은 회복의 첫 걸음이 된다.

불법엔 구구절절 치병의 길이 있다.

협찬 : 한용수·한결